



Balance of Landscape Design - 연재 4



도심속에 자연의 정서까지도 연출하는 또 다른 즐거움

나는 숲속의 작은 개울가의 이끼가 잘 피어있는 바위와 이 바위를 틀싸에 뿌리를 박고 피어난 노루오줌의 꽃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시원한 물 넘새를 느낄때 가장 여유롭고 행복감을 맛보곤 했다. 그리고 조경은 식물을 생산하고 또 그 식물을 이용한 조경을 하면서 이 숲속의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 아름다움을 적음하고 숲속에서 느끼는 그 신선함을 고객들에게 재감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물론 이것도 조경의 한 패턴이므로 주변 건물의 형태와 전체 조경패턴을 고려하여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는 장소가 있고 밭주 고개의 기호와 궁합이 있어야 한다.



"우리꽃"이 다양한 혼합식재의 기법을 통하여 조경의 패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후 가장 많은 문의가 한 장소에 다양한 식물이 적용되어 어떻게 관리할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경관리는 많은 종류의 식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한 관리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어떤 경우 많은 종류가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불타워 꽃을 피우므로 일반적 인 군락식재보다 단정하기 가려진 수도 있다. 때때로 조경은 관리를 해야 하는 단순한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좋은 경관연출은 불가능하다. 토양이 건조하면 관수를 해야 하고 비료가 없었지만 양분을 공급해야하고, 병해충이 생기 식물을 가해하면 방제를 해야 하고,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 단정하게 해야 하고 포기가 너무 늘

어나 식물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적당히 솎아 주어야 하고, 내연성이 약한 식물은 겨울동안 보온을 해야 하고 등등, 조경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마려이다. 이런 인식이 있고 나면 이제 어떻게하면 자연의 느낌까지도 함께 연출할 수 있는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된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숲속의 아름다운 경관을 떠올려 모형을 설정한다. 작은 음당생을 만들것인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들것인지, 햇볕이 잘 드는 숲을 연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모델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 모델은 직접 다녀 본 숲속의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둘째, 자연구조물을 적극 활용한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끼가 붙어 자랄 수 있는 돌근원의 바위나 산돌, 그리고 고목의 뿌리나 줄기 등 자연구조물을 이용하여 쉽게 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만약 자연구조물의 구멍이나 준비가 어렵다면 인공의 구조물을 이용하되 되도록 실과 색 등이 튀지 않는 단순한 구조물에 유리한다.

셋째, 바닥재의 마감재에 유의해야 한다. 인공의 마감재를 되도록 줄이고 천연의 재재를 이용하는 데 골은 마시나 강자갈 등 천연의 재료가 유리하고 만약 잘 구워진 황토마사, 혹은 화산석 등이 있으면 더욱 유리한 면이 있다.

넷째, 준비된 각각의 요소들의 조화가 중요하다. 우선 자연구조물의 종류와 크기 등에 따라 주제와 부제를 나누고 또 제 2주제와 부제, 3주제와 부제 등을 나누고 이들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제 1주제를 가장 먼저 선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부제를 놓아 주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주제와 부제의 결합은 다양한 변형된 삼각 구도가 가장 유리하다. 제 1주제를 설치하면 제 2주제를 1주제가 돋보일 수 있게 설치하고 그 부제를 설치한다. 물론 이 때도 변형된 삼각의 구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구조물의 설치가 끝나면 식물을 선택적으로 배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선택된 식물의 종류와 패턴에 따른 식재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물이 있으면 그 관련된 식물을 배치하고 화기가 화색, 키 등을 고려하여 혼합식재한다. 혼합식재의 개념 중 어떤 꽃에는 군락을 끼는 것보다는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심하게 번지는 종류나 줄기가 의한 풍치가 너무 빠른 종류는 되도록 피하여 식재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식물의 자연천이가 진행되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관의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고 관리에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마감재로 황토마사인 '거칠'을 이용한 예



고목을 자연구조물로 이용하여 경관 연출 1



고목을 자연구조물로 이용하여 경관 연출 2



자연경관을 모델로 연못 조성

Contents

- Balance of Landscape Design - 연재4 1면
- 원정리코트/무늬출시지소 2면
- 대표작 조경식물/식물, 암석기름을 식물 3면
- 그라스스케이프/수목, 수변식물의 이해 4면
- 스물가튼프로젝트/음식물의 이해와 적용 5면
- 중지프로젝트 6면
- 원정리코트 7.8.9면
- 관상집중목 10, 11면
-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토종화초를 찾아서 13면
- 지상중계 14면
- 포천식물원 15면

현장 리포트

그동안 혼합식재, ARI가든, 캐류식재 등 다양한 식재배턴을 여러현장을 안내하며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물론 현장을 직접 탐사하는 것만큼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지만 사진속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만으로도 뛰어난 경관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본다.

전체적인 조경면에서 볼때 속근지피식물을 이용한 식재는 마지막 화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조경을 속근지피식물의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전의 조경현장에서는 소재의 빈곤함과 획일적인 식재배턴 등으로 관형적인 식재가 반복되면서 그 효과를 못보며 속근초의 식재는 그저 캐류날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 화강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전



체적인 분위기까지 확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우수한 소재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그에 따라 식재배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쉽게 말하자면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최고의 마술도구가 밑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특강은 마술도구를 가지고서도 그 사람의 표현 능력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



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제는 조경식물의 식재에 있어서도 디자인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뛰어난 소재의 고급속근지 피식물을 이용하여 어떻게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코너는 그것을 혼합식재, ARI가든, 캐류식재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올해에도 많은 조경현장에서 새단장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지난 하반기에 단장을 마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종 시리즈 - ⑦

붉은색과 하얀꽃물결의 조화 펜스테몬 상록홍염



펜스테몬(Penstemon)은 우리에게서는 조금 생소한 소재이지만 많은 품종이 존재하고 세계적으로 유용한 조경을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종모양의 형태로 줄줄이 매달려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꽃은 품종에 따라 화색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여름에 꽃을 피우고 대부분 겨울에 상록 또는 반상록성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펜스테몬 상록홍염(Penstemon digitalis 'Husker Red')은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면서도 뛰어난 조경소

재 활용 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형태적으로 본다면 일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띄는데 특히 어린잎은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띄다가 커지면서 진녹색으로 변한다. 하지만 일백과 잎뒷면은 계속해서 붉은빛을 유지한다. 그래서 추대가 되었을때 위쪽의 새순은 적색을 띄고 점점 내려오면서 진녹색을 유지하지만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발산하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 꽃은 종모양의 하얀꽃이 방울방울 매달려 여름에 시원함을 가져다 준다.

일반적으로 좋은 소재는 꽃이 장기간화되거나 잎이 길간이 줄거나 꽃이 화려함을 주는 등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면에서 봄에 펜스테몬 상록홍염은 순백의 아름다운 꽃과 더불어 잎이 붉은빛을 띄는, 그것도 겨울상록을 유지하는 뛰어난 조경소재임에 틀림없다.

겨울상록을 유지하는 식물로 군식을 필요로 할때 적용하면 좋고 혼합식재시 여름의 하얀꽃과 사계절 붉은 잎은 다른 식물과 어울려 포인트식물로 활용에 주변 매우 좋다. 또한 ARI가든에 겨울상록소재로 작용이 가능하다. 펜스테몬 상록홍염은 적열을 띄는 소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좋은 포인트 식물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관리면에서 일부 펜스테몬류는 여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이 품종은 강건하여 잘 자라고 병해충에도 강하여 특별한 관리의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 해주어야 생육이 불량해지지 않는다. 번식은 가을에 분주하거나 봄에 삽목을 하면 된다.

아름다운 잎과 꽃이 잘 조화를 이루는 유망한 소재로 2007년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갈 것이다.



빅스타사계간의 장점

- 분지출근 7-10cm로 크고 꽃이 붉은색에 반상록성
- 화형이 특이한 것은 잎이 붉은색에 반상록성
- 꽃이 붉은색에 반상록성
- 꽃이 붉은색에 반상록성

구입문의) 02) 3412-1281~2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⑪

Achillea속

Achillea속은 일반적으로 토피컬로 불리어지며 세계적으로 많은 종이 분포하고 다양한 화색의 품종들이 조경용 소재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임오양이 톱 모양처럼 생겼다하여 불리어 이름인데 대부분 톱모양의 잎을 띄고 있지만 품종에 따라 잎의 모양도 제각각이다. 일부 품종은 매우 고급스럽고 화기도 길어 고급정원으로 애용되어지고도 한다. 허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아로우드 토피컬의 일종이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은 붉은토피컬과 흰꽃을 피우는 토피컬과 큰토피컬이 존재한다.

토피컬 비단 (Achillea millefolium 'Red velvet')



진한 적색을 띄며 매우 강렬하며 고급스러운 화색을 가지고 있다. 키60-70cm 정도 자라며 꽃은 6-10월까지 장기간화된다. 물론 1차개화후 바로 꽃대를 키워줄때 2차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화기가 길기 때문에 군식을 해도 좋고 혼합식재에도 유용하게 이용되어질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토피컬 파스텔 (Achillea millefolium 'Colorado mix')



다양한 화색이 혼합되어 있어 파스텔톤의 고급스러운 멋을 연출한다. 비단과 마찬가지로 키 60-70cm정도 자라며 꽃은 6-10월까지 장기간화된다. 단일색보다는 다양한 색깔을 한꺼번에 감상하고자 할때 적용하면 좋다.

큰토피컬 (Achillea ptarmica)

주로 우리나라의 백두산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키가 약80cm까지 자라며 꽃은 하얀색꽃이 7-8월에 핀다.



토피컬 화이트캔디 (Achillea ptarm. 'pearl')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데 다른 토피컬과 달리 꽃송이가 개별적으로 떨어져있으며 키는 크지만 꽃이 필때는 비스듬히 쓰러지기 때문에 흰꽃이 스프레이형을 이루며 피게 된다.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혼합식재시 빨간화색의 토피컬과 보조를 이루어 심으면 잘 어울린다.

토피컬 레몬 (Achillea filipendulina 'Hoffnung')



노랑색계통의 품종중에서도 연노랑색의 은은한 맛이 들어나오는 품종이다. 키는 50-60cm로 작은 편이고 6-10월까지 장기간화된다. 연노랑색의 꽃은 다른 화색, 특히 붉은색 계통의 꽃과 조화를 잘 이룬다.

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 - ⑪

키작은 상록성 기린초

상록애기기린초

세덤류는 옥상, 암석가든용 주소재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세덤류는 형태적으로 크게 포복형, 반포복형, 직립형이 있는데 상록애기기린초(Sedum middendorffianum 'Sanglook')는 직립형이면서도 키가 크지 않은 상록성의 세덤이다.

전체적으로 잎은 작지만 광택이 있어 절감이 뛰어나다. 키가 크지 않으면서 적당한 크기의 구형을 이루어 매우 모양이 좋다. 6-7월에 별모양의 노랑꽃을 피우고 꽃이 진다음의 적색의 꼬투리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관상 가치가 높다. 가을에는 적색으로 단풍이 들면서 절점 추위가 다가오면서 겨울을 대비하듯 물체를 축소시키고 적색의 물을 음미되듯 상록으로 겨울을 보낸다.



세덤류중에서도 매우 강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름 장마철에도 매우 강하고 좋은 절감과 식물 품을 가지고 있어 암석가든용 소재로 유망한 품종이다.

Grass Scape

연재 - 11



작년 한해동안 수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라스로 무늬글리세리아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만큼 수변의 새로운 식물로 인식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수심 20cm까지도 생육이 매우 좋아 더욱더 그 활용폭이 넓은 신소재이다.

최근 자연형하천을 복원하면서 수집정화는 물론 시민들의 취미로 가꾸기 위한 수변식물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수변식물원이 아름다운 경관을 하는 식물만 적고 그나마 여름철에만 쓸려가거나 물해바리는 수가 빈번하다. 그러면서도 무늬글리세리아는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고 생육이 강건하며 어떤 외부여건에도 강하여 단시간에 회복을 하는 식물이다.

변식은 땅속지하경으로 하며 잎이 두껍고 아름다운 곡선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연재 - 16

일반적으로 영초과의 식물은 대부분 약간의 습기가 있는 땅을 선호한다. 그 중 *Lysimachia* 속은 물에 강한 특성이 있어 수변식물로 많이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종살풀(*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이나 까치수영(*Lysimachia leystachys*)과 같이 습지에 사는 식물이 대표적이다.

황금 무늬꽃 좁쌀풀(*Lysimachia punctata* 'Alexander')은 종살풀과는 다른 꽃차례와 꽃이 크고 잎에 무늬가 아름다운 수변 식물이다. 종살풀은 종상화서의 꽃차례를 가지는데 비해 황금무늬꽃좁쌀풀은 잎 마디에 하얀색 꽃을 피운다.

황금무늬꽃좁쌀풀은 이른 봄 새싹이 나올 때는 전체가 붉은 빛을 보이다가 점점 잎에 무늬가 하얗게 변해 꽃이 피지 않아도 매우 훌륭한 관상가치를 지닌다. 줄기는 가이저이고 엽은 마주나며 6월에서 7월에 걸쳐 황금색의 큰 꽃이 식물체 전체를 덮는다. 키는 보통 60~70cm정도 다라고 포기범용은 좋으나 포기 전체의 붉이 단정에 모양이 좋다.

이 품종은 땅을 별로 기리지 않으며 매우 건조한 토양이 아니면 수생이나 일반재에서도 생육이 뛰어나므로 관리에도 매우 유리하다. 다만 장마철 이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강열한 태양을 받을 때 흰 무늬의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전체 포기를 지하부에서 잘라주면 새로운 줄기가 발생되면서 다시 아름다운을 되찾을 수 있고 가을 까지도 좋은 모습을 유지한다.

수변의 포인트 식물로 이용해도 좋지만 어떤 형태의 물 배치가 좋지 않아 일반적인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은 곳에 군락을 지



아름다운 무늬, 수변 최고의 화본과

“무늬글리세리아”

의 무늬가 노랗게 들어있어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천 혹은 광장등의 ponds 주변에 적용하면 안정감있고 유럽의 경우 무늬글리세리아의 무늬가 좋아 일반 공원 등의 화단에 식재를 하기도 한다.

키는 60~90cm까지 자라고 줄기의 지하경의 발달로 땅아래가 좋아 조밀한 잎을 뽐낼만 아니라 남부 지방에서는 반상쪽으로 겨울을 날 정도의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없는데 여름철 고온기에 통풍이 잘 안되거나

면 지저분하게 약간 물러 내어왔거나 간혹 나뭇의 유충이 줄기 속을 파고 들어가 피해를 준다. 이런 경우 약제방제가 필요하지 않음으로 화본과라이 빠르므로 한번쯤 키워해주는 것도 좋다. 화본과 무늬식물로 줄기생장이 빨라 자른 후 약 2주일 정도 지내면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늬글리세리아는 다른 수변식물과 잘 어울려 한해 아름다운 수변을 연출할 수 있다.

Small Garden Project

연재 - 11

모든 조경소재들이 그렇지만 각 소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 소재의 특징을 잘 살린다면 사소한 소품원자라도 같은 공간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화단 경계에서 벽돌, 철제 구조물, 통나무, 자연석 등의 소재사용에 따라 공간연출을 달리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또한 경원의 바닥을 잔디, 자갈, 시멘트로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각각 특성을 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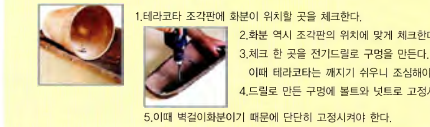
정원을 꾸밀 때 빠질 수 없는 화본 역시 공간 연출을 할 수 있는 조경소재 중의 하나이다. 예를들어 요즘 현대적인 자연스런 조화를 만드는 데탈라코타의 화본은 자연스런 느낌이 아닌 현대적인 카페의 공간에도 많이 사용되고 한다. 그리고 나무로 짜여진 원반은 자체로 자연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일반 도가에 파스텔톤의 색을 입혀 만든 화본은 신세대 가정집의 심플한 멋을 연출할 때 많이 쓰여진다.

이번호에서는 유럽의 고전적인 미를 연출시킬 수 있는 데라코타 벽걸이 화본을 소개하려고 한다.

◆ 데라코타 벽걸이 화본 제작순서

재료 : 데라코타 조각판, 데라코타 화본, 볼트, 너트, 전기드릴, 펜, 경량도양, 퇴비, 물용 형성 시립수 있는 식물

1. 데라코타 조각판에 화본이 위치할 곳을 체크한다.
2. 화본 역시 조각판의 위치에 맞게 체크한다.
3. 체크 한 곳을 전기드릴로 구멍을 만든다.
- 이때 데라코타는 깨지기 쉬우니 조심해야한다.
4. 드릴로 만든 구멍에 볼트와 너트로 고정시킨다.
5. 이때 벽걸이화본이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유럽정원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라코타 벽걸이 화본”

데라코타의 유래는 매우 오래되어 석기시대에 어서서 또는 그것과 병행하여 발명된 것으로 생각되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 유프라테스 지방, 소아시아 · 이집트 등의 유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데라코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대 그리스의 타나고스 지방의 가랑이 발달된 타나고스 인형이라고 불리는 소상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느낌연출에 적격이다.

이탈리아어로 데라(terra)와 코타(cata)의 합성어로 '구운 흙'이라는 뜻이며, 구우면 단단해지고 치밀해지는 점토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여러 가지 형상의 조각이나 건축 장식용 재료를 만들 수 있으며 여러 색깔과 특성을 지닌 점토를 이용하거나 또는 화학 약품의 사용, 구워내기 방법 등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만들 수 있다.

식물만 소수 만든 타일과 포트는 특히 남유럽풍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나라 기와집의 기와장과 장독대 역시 데라코타와 뜻을 같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 알맞은 조경소재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데라코타 벽걸이 화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단단한 고정시킨 화본에 토양과 퇴비를 섞어 담아 주는데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보수력과 보비력이 뛰어나며 가벼운 경량토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토양종이 만들어진 벽걸이 화본에 식물은 그 자체로 공중에서 볼을 형성시켜야 한다. 에버그린이비, 에버그드, 황금무늬반가, 파란 잎검은바리, 붉은애기꿍의비늘, 속근코스모스, 알기밀라 등이 좋은 소재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식재된 데라코타 벽걸이 화본을 벽에 걸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고전적인 느낌의 데라코타와 상반되는 밝은 파스텔톤 벽은 피해야 한다. 벽에 걸린 데라코타 벽걸이 화본은 다른 화본보다 쉽게 건조해 지기 때문에 관수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라코타 벽걸이 화본으로 여러분은 유럽의 고전적인 멋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연재 - 11

우리는 흔히 닭의장풀(*Commelina communis*)을 꽃이 매우 아름답지만 잡초로 분류한다. 이 식물은 들이과 속이고 흔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여름 뿌리를 뽑아서 말려도 습기가 줄 오거나 하면 다시 뿌리를 내리는 생명이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1년생이다. 그러나 자주 달개비(*Tradescantia reflexa*)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좋은 관상용 식물로 수입되어 재배되는 식물이자, 우리나라에 전해진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시골의 장독대 주변 혹은 뒷마당 등 기암지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도입원지가 오래된 듯하다. 예전 시골의 자주달개비는 아담해서 보아지듯 자주색이다. 또한 개화기가 초여름에 한정되어 있어 그다지



인기를 끌지는 못한 것 같다. 최근 우량의 좋은 품종들이 도입되면서 자주달개비의 새로운 전기가 발원 되고 있는데 우선 화색의 다양화와 함께 꽃이 5월부터 개화하여 가을까지 연속 개화한다는 특징이



봄부터 가을을 수놓는 진주

“자주달개비”

었다. 원래 자주달개비는 햇빛이 좋은 곳에서 생육이 좋지만 국내에서의 재배 경험을 토대로 하면 반음직 혹은 숲의 가장자리나 아담적목으로 해가 드는 활엽수림 혹은 건물에 가려진 반나절 음자에서 생육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꽃의 색이 더욱 선명하고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반음직 식물로 재단 하교자 한다.

자주달개비는 닭의장풀과 같이 생육이 강건하며 포기 벌음이 좋은 식물로 꽃은 이른 아침에 피어 하루만에 지는 단점과 함께 강한 햇빛을 받으면 오전 11시경도면 꽃이 시들기 시작한다. 따라서 장마철에 이 식물의 전기가 발현되는 데 날씨가 흐린날 혹은 공중습도가 높은날은 오후까지도 아름다운 꽃모양을 연출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가 나 혹은 햇빛과의 약간 그늘진 곳에 식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고 꽃이 행랑새의 느낌을 주므로 햇빛이 앞장부분 들어오는 활엽수림아래에 적격 활용해 보면 좋다.

물론 햇빛이 좋은 양지에 심어도 생육은 좋지만 여름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잎이 타는 증상이 있어 오히려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잎이 지지부들해지면 줄기의 아래에서 잘라 사순을 받으면 가을까지 좋은 꽃과 잎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나 대표적인 품종이 레드그레이트, 블루, 아이스, 사파레, 카민 등이 있다. 우린래 3.4월 초에 품종공모도 자문을 함에하여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생각이다.



종자프로젝트

인크레스 - 8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 “왜성황화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도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키가 작은 왜성종이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것이 황화코스모스 왜성종 2품종이다.

왜성황화코스모스 2품종 모두 50-60cm로 30cm 정도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고 절간이 매우 짧으며 식물체의 품이 매우 단정함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도로가 화단, 골프장 진입로 등에 적용하면 인상깊다. 왜성황화코스모스 '오렌지'는 진한 주황색으로 매우 화려하고 '레몬'은 연노랑색으로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2품종 모두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길가나 넓은 면적에서는 서로 반복하여 적용해도 좋다. 또한 코스모스 빅스타사계에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이색적인 코스모스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코스모스 품종을 이용하여 지자체 등에서 이벤트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코스모스 지역축제를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한다.

작년에 출시한 코스모스 빅스타사계는 꽃이 크고 육묘후 50일 뒤에 개화하기 시작하여 장기간에わた는 고급 코스모스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여름에 피는 코스모스로 오랫동안이 도로변들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꽃이 주황색꽃을 가진 황화코스모스이다. 더운 여름을 주황색의 은은한 화려함으로 수놓는 황화코스모스는 점점더 친근한 소재로 다가오고 있다. 양반적으로 조성은 일반 코스모스와 비슷하게 약 150cm이상 차단다.



왜성황화코스모스 오렌지



왜성황화코스모스 레몬



일반 황화코스모스 / 분식물일

최고의 토양피복 화장품

“그린키퍼”

야생화, 이제 겨울에도 아름답습니다.

특성

1. 동절기 잎이 사멸해도 토양이 노출되지 않고 아름다운 정경을 연출한다.
2. 비둘기 거뒀어지고 침범행위 등 관리비용 획기적으로 절감 수 있다.
3. 봄 기온이나 기타 기온상에 보수력을 높여 건조해를 방지하고 여름토양을 낮추어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돕는다.
4. 여름철 무기시에 땅 표면과 식물체를 분리시키고 통기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생육을 돕는다.
5. 식물의 근력 대와 잘 어울려 식물을 더욱 아름답고 눈보라에 의해 G(바라) 함께 사용시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린키퍼의 올바른 사용방법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크** 구입문의 : 02)3412-1281~2

2개월후 조성 모습



조성전 모습

우리꽃 현장히트상품

화려한 봄 꽃방식 꽃잔디 시리즈



1. 생육이 강건하고 자람이 빠른 최고의 봄꽃
2. 군식하거나 육상, 암석가든용으로 잘 어울리는 소재
3. 봄동안 활짝이었을때 더 잘 어울려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고급조경의 필수소재 가우라



1.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화
2. 아름다운 꽃을 남고 있는 나비를 연상
3. 생육이 강하고 화색이 다양하다.
4. 우리의 정서에도 안맞아 도로변을 비롯하여 골프장, 공원, 식물원,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잎이 조밀하고 포기모양이 좋은 알기밀라



1. 화단용, 시리가든용, 수변용 어디에 사용해도 좋다.
2. 스프레이형의 노란꽃은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고 절화용으로도 인상깊음

작은 화단용 고급소재 금계국 시리즈



1.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는 장기간화형 금계국
2. 생육이 강하여 도로변, 정원용으로 좋다.
3. 무늬종과 혼식하여도 좋다.

촛불형의 아름다운 장기간화형 꼬리풀 시리즈



1. 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4품종의 꼬리풀
2. 품종별로 화색, 크기, 화기 등이 서로 달라 구미에 맞게 품종선택 가능
3. 장기간개화하여 화단, 도로변, 식물원 등에 사용하면 좋다.

다양한 화색의 봄 국화 구름국화



1. 봄에 피는 아름다운 국화
2. 건조에도 강한 최고의 화단식물
3. 키가 작아 혼식재식시 앞쪽식물로 좋다.

우리꽃 ‘현장히트 품종’

음식의 새로운 신소재
왕대나물 실버
일과 꽃이 모두 좋은



1. 무늬가 화려하고 지피력이 매우 빠르다.
2. 음향치 및 건조함을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화색 보라
원도 음지, 양지
초장 30~40cm

생육이 강한 무늬종
노란줄무늬세덤
일과 꽃이 모두 좋은



1. 지피력이 뛰어나다.
2. 무늬가 좋고 학기름, 육상조경에 적절한 소재

화색 노랑
원도 음지
초장 10cm

최고의 양백, 화백용 소재
눈붉은필레
위에서 아래로 빨강의 식물목포



1. 국내 양백제를 개발한 화상의 향토수종
2. 자방이 화려 핑계, 양사면, 물타리녹화 난이도 OK

화색 빨강
원도 음지
초장 5~6월
초장 포복성

이색적인 꽃매미
니포피아
내한성이 강한 품종



1. 이색적인 꽃매미는 많은 사람들의 사선 주목
2. 골프장 티하우스 주변에 적용하면 일품

화색 혼합
원도 음지
초장 6~7월
초장 60~70cm

꽃가 일의 질감이 뛰어난
돌장미
암석가든에 잘 어울리는 소재



1. 화색이 다양하여 화녹색의 일품 질감이 뛰어나다.
2. 돌주변, 돌틈에 식재하면 매우 잘 어울린다.

화색 혼합
원도 음지
초장 4~5월
초장 10~15cm

이국적인 아름다운
디기탈리스
목초, 전원주택 등의 건물과 공화



1. 꽃의 질감이 좋고 화려하여 멋진 식재로 양호
2. 화기가 크고 화려한 고급품

화색 혼합
원도 음지
초장 5~7월
초장 100~150cm

일의 질감이 뛰어난
로니세라 황금
키작은 관목형 신소재



1. 황금색일의 질감이 뛰어나다.
2. 화단에 포인트 또는 라인식물로 좋다.

화색 노랑
원도 음지, 반음지
초장 20~30cm

화려함의 결정판
메가나메발름
봄의 화신, 화려함의 최상



1. 매우 아름다운 대발름으로 화색이 다양하다.
2. 공원, 골프장, 전원주택 등 최상의 봄식물

화색 혼합
원도 음지
초장 4~5월
초장 30~40cm

음지의 빠른 지피
무늬엔젤리카
화려한 무늬의 일과 꽃



1. 습기가 많은 연못을 최고의 식물
2. 생육이 강건하여 음·양지 및 전·습지를 가리지 않는다.

화색 하양
원도 음지, 양지, 수변
초장 5~6월
초장 50~60cm

황금색 무늬가 좋은
무늬여우꼬리그라스
생육이 강건한 무늬종



1. 생육이 왕성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하얀과 식물
2. 근식화거나 다른 식물과 어울려 포인트식물로로도 좋다.

화색 무늬종
원도 음지
초장 20~30cm

순백의 무늬가 돋보이는
무늬썬주그라스
고급화단용 그라스 소재



1. 순백의 무늬가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2. 하고현상으로 기타이름식물과 혼식하는 것이 좋다.

화색 무늬종
원도 음지, 반음지
초장 15~20cm

음습지의 새로운 지피식물
무늬파미
트양피복력이 뛰어난 무늬종



1. 습지와 나무 아래 음지에서도 생육이 좋다.
2. 골프장의 배수불량이나 전기가 잘 지르지 못하는 습지, 천황주목의 구식전조, 물개단에서 적용

화색 무늬종
원도 음지, 습지
초장 5cm

전혀 새로운 개성의 신소재
발레리안
음양지, 견습자를 구분하지 않는



1. 꽃이 조밀하고 아름답다.
2. 함양수 아래는 물론 비취갈채에도 생육이 좋다.

화색 진분홍
원도 음지
초장 5~6월
초장 50~60cm

강렬한 화색의 독자꽃
붉은일동자
하러함으로 음지를 밝게하는



1. 일반 등자꽃에 비해 꽃이 진하고 화려하다.
2. 양지 뿐만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좋다.

화색 주황
원도 음지, 반음지
초장 6~9월
초장 30~40cm

양송이와 꽃과 조밀한 양
비단너도부추
아담한 초형의 겨울상록소재



1. 동그란잎과 보드라운 잎의 조화
2. 양지에서도 물론 대형연못의 수변식물로 으뜸

화색 분홍
원도 음지
초장 4~5월
초장 10~15cm

동자꽃의 새이름
비단동자
건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1. 일반동자꽃에 비해 생육이 매우 강하다.
2. 양지, 건조에 강해 관리가 쉽고 화려하다.

화색 진분홍
원도 음지
초장 5~6월
초장 50~60cm

일이 아름다운 기적은 조림
삼색조팝
가을의 단풍은 일품



1. 향긋한일과 붉은빛을 띄는 새순과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2. 도로변, 골프장, 공화 등에 식재하면 좋다.

화색 분홍
원도 음지, 반음지
초장 6~7월
초장 40~50cm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
상록잔디패랭이
잔디패랭이보다 더크고 화려한 꽃방식



1. 매번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
2. 근식하거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알록시물, 육상조경, 돌문식재 등에 이용하면 좋다.

화색 분홍
원도 음지
초장 4~10월
초장 10~15cm

낮에 피는 왕당맞이
숙근달맞이 황금
생육이 왕성하고 재배하기 쉬운



1. 꽃이 매우 크고 화려하다.
2. 재배가 매우 용이하다.

화색 노랑
원도 음지
초장 6~7월
초장 50~60cm

새로운 개성의 사루비아
숙근사루비아 마르커스
생육이 강건하고 재배하기 쉬운



1. 생육이 강건하고 화색이 아름다운 사루비아
2. 매년 교체할 필요없이 1회 식재로 OK

화색 보라
원도 음지
초장 5~10월
초장 20~30cm

우리꽃 ‘현장히트 품종’

키가 작은 천상의 아름다운
수근왜성천안국
꽃이 아름답고 키가 작은 여름대표식물



1.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길다.
2. 화색이 아름답고 강렬해 최상의 포인트식물

화색 빨강
원도 음지
초장 6~10월
초장 40~50cm

총물부터 다화성 꽃무리
스타치스
일과 꽃이 모두 좋은 소재



1. 키가 작고 칙칙한 꽃무리가 아름답다.
2. 모기장이나 배려하고 많은 꽃대를 형성한다.

화색 보라
원도 음지
초장 7~8월
초장 40~50cm

봄부터 가을까지
스텔라원주리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 개화종



1. 꽃이 힘스롭고 화수가 많다.
2.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화색 노랑
원도 반음지, 양지
초장 5~10월
초장 20~30cm

천상의 아름다운
아이슬란드 보베
대면적의 최고 이벤트



1. 꽃이 매우 아름답고 시청적이다.
2. 공원, 둔지, 공화 등의 대면적에 활용하면 좋다.

화색 혼합
원도 음지
초장 4~5월
초장 25~30cm

일이 작고 초밀한 아주가
애기아주가
음지나 혹은 라인식물로 좋은



1. 기존 아주가의 단점인 홍색시 다른 식물로의 한몫이 없다.
2. 일이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화색 보라
원도 음지, 반음지
초장 5~6월
초장 10~15cm

생육이 강하고 아름다운 영초
앵초 캐쉬
대형의 꽃무리



1. 이른봄 화려한 꽃을 연출
2. 다양한 화색의 꽃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화색 혼합
원도 음지, 반음지
초장 3~4월
초장 10~20cm

일의 질감이 매우 뛰어난
은썬
은화색의 뛰어난 지피력



1. 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다.
2. 일의 질감이 뛰어나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화색 노랑
원도 음지
초장 5~6월
초장 5~10cm

무늬섬으로 지피력이 뛰어난
음지황국
일과 꽃이 뛰어난 최고의 음·양지용소재



1. 음지의 새로운 대안식물
2. 장기개화하는 노랑색의 꽃이 절경

화색 노랑
원도 음지, 습지
초장 5~6월
초장 10cm

장기개화형 음지식물
달개비 블루
아름다운 블루색 달개비



1. 달개비 어느정도 들어오는 반음지에 적용가능
2. 늦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화색 보라
원도 반음지
초장 5~9월
초장 50~70cm

여름과 가을에 개화하는
초롱꽃 켄트벨
금강초롱과 비슷한 모양



1. 화색이 진하고 화수가 많아 고급조경용 소재
2. 질감이 기존 초롱꽃에 비해 필드히 감함

화색 보라
원도 음지, 양지
초장 6~7월
초장 40~50cm

부족한 초대형 조본식물의 발견
칸나 파초
키2.5~3m의 대형식물



1. 독립수로 한가 등와 식재로 안정감 회복
2. 양지에서도 물론 대형연못의 수변식물로 으뜸

화색 하양
원도 음지
초장 2.5~3m

일이 작고 초밀한 바위술
푸른옥바위술
화색의 일의 질감이 좋은



1. 초형이 매우 아름답고 귀여운 바위술
2. 음에도 강하고 모양을 내는데 좋다.

화색 하양
원도 음지
초장 7~8월
초장 5cm

일의 질감이 매우 뛰어난
해변국화
주변형의 가을국화



1. 진화색의 일품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2. 주객형의 노란색꽃은 늦가을까지 유지된다.

화색 노랑
원도 음지
초장 10~11월
초장 40~50cm

새로운 습지대용 식물
화홍물사초
습지조성시 군식하면 좋다.



1. 블루색 일품 질감이 뛰어나다.
2. 습지조성시 군식하면 좋다.

화색 연분홍
원도 음지, 수중
초장 5월
초장 70~80cm

일과 꽃이 모두 좋은
황금무늬빈카
음지의 새로운 무늬종



1. 일의 무늬가 좋아 일반 빈카와 혼식해도 좋다.
2. 야마모, 공화, 도로변의 곱슬이나 나무 아래 식재하면 좋다.

화색 보라
원도 음지
초장 5~9월
초장 40~50cm

연분홍색 후룩스
후룩스 향심
고급이미지 연출



1. 하얀색에서 가을로 갈수록 연분홍색으로 변신
2. 가장의 분화용으로 좋다.

화색 연분홍
원도 음지
초장 6~10월
초장 70~80cm

화안색 근남화
흰금남화
색다른 느낌의 조경소재



1. 양지 및 함양수 아래 적용이 가능한 소재
2. 가장의 분화용으로 좋다.

화색 하양
원도 음지, 반음지
초장 4~5월
초장 50~60cm

2007년 “관심집중품목”

연재-1

관심집중 품목 Grasses

이미 조경선진국에서 그라스류는 조경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품종 또한 매우 다양하여 적용폭이 매우 넓은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물론 억새, 수크령 등 일부 그라스류가 조경에 이용되고 있었지만 폭넓은 의미의 그라스류의 이용이라고 보다는 단지 대단위 군락식물 개념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그라스류는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맞는 소재로 조경면에서 볼때 식물의 전체적인 형태(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재이다. 그리고 음지, 양지, 수중, 건조지 등 식물중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식물군이고 대부분 근식하여야 큰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에도 좋은 그라스 소재를 소개함으로써 그라스류의 적용을 폭넓게 넓혀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대량생산 을 통해서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관심집중 품목 개량후룩스



개량후룩스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없이 빠져서는 안 될 조경의 필수 소재가 되었다. 개량후룩스는 그 화려함에 있어서 그 어떤품종보다 뛰어 나고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개화된다. 또한 흰가루병에 내병성이 있을뿐만이 아니라 품종이 다양하여 적용폭이 매우 넓은 최고의 소재이다.



관심집중 품목 개량감국

일반적으로 국화류가 가을에 꽃이 만개되는 것과 달리 개량감국은 초여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피우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화색의 꽃이 혼합되어 만개되었을 때 한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2007년도에도 변함없이 계속 인기를 누릴 수 있거나 새롭게 선보이는 품목 또는 품종군을 2회에 걸쳐 신는다.
-편집자주-

관심집중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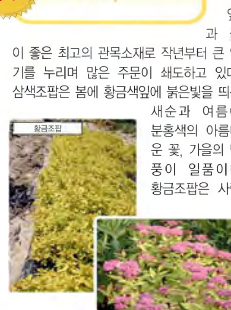
Sedum

세덤은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옥상조경의 중요한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꽃에서는 약 30여 품종의 세덤을 선보이고 있는데 품종이 다양한 만큼 잎과 꽃의 형태가 다양하다. 염색, 화색,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세덤만으로도 옥상을 조경해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관심집중 품목

삼색조팝, 황금조팝



잎과 꽃이 좋은 최고의 관목소재로 작년부터 큰 인기를 누리며 많은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삼색조팝은 봄에 황금색잎에 붉은빛을 띠는 새순과 여름에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 가을의 단풍이 일품이며 황금조팝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황금잎이 일품이다. 공원, 도로변, 골프장 등에 회양목이나 철쭉대용으로 활용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관심집중 품목

실유카 브라이트에피



겨울에도 상록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뽐내는 브라이트에피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 황금색의 밝은 무늬종으로 포인트식물로 좋고 상록성으로 겨울조경의 중요한 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무늬가 뚜렷하고 질감이 좋아 독립수로도 양호하다.

관심집중 품목

애기아주개



아주가 품종 중 잎이 작고 조밀한 품종으로 기존 아주가가 런너로 번식하지만 애기아주개는 포기로 번식하므로 혼식시 다른 식물로의 침범이 없다. 양을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잎이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파이어스톤

경주용 타이어 전문회사가 만든 친환경 라이너

가정용, 옥상, 베란다 등의 소형연못 최고의 선택

EPDM 라이너!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은 비강성고분자물질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물과 접촉시 내약품, 수온 등 중 식물에 해로운 성분이 유출되지 않으며, 고무특유의 냄새가 없어 조류, 물고기와 식물 등에 피해가 없고 기생조식 탄소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오존과 자외선에 강하다.

자연친화적 뛰어난 유연성 탁월한 내구성

1. 시공 전 준비 2. 라이너를 깔고 3. 라이너를 고정 4. 라이너를 고정 5. 라이너를 고정 6. 라이너를 고정 7. 라이너를 고정 8. 라이너를 고정 9. 라이너를 고정 10. 라이너를 고정

1. 시공 전 준비 2. 라이너를 깔고 3. 라이너를 고정 4. 라이너를 고정 5. 라이너를 고정 6. 라이너를 고정 7. 라이너를 고정 8. 라이너를 고정 9. 라이너를 고정 10. 라이너를 고정

1. 시공 전 준비 2. 라이너를 깔고 3. 라이너를 고정 4. 라이너를 고정 5. 라이너를 고정 6. 라이너를 고정 7. 라이너를 고정 8. 라이너를 고정 9. 라이너를 고정 10. 라이너를 고정

판매처 : 우리꽃 (02)3412-1281~2



우리꽃에는 300여종의

다양한 종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꽃은 야생화요청은 물론 종자시장에서도 국내최고의 생산기지를 가진 종합전문회사입니다. 중국 20만평의 대농장에서 매년 우량의 야생화 종자 및 사방용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체 생산, 보급회사입니다.

기능성과 경관미학에 적합하고 다양하게 구비된

야생화 종자



무절초



꿩의다리



마타리



벌개미취



부처꽃



산국



쑥부쟁이



층꽃

대면적의 빠르고 화려한 조경에 알맞은

도입야생화 종자



샤스타데이지



금계국



꽃양귀비



끈끈이대나물



루드베키아



춘차국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넓은 면적의 사방이나 법면에 적합한

향토, 사방종자



갈대



수크령



억새

재배 쉽고 경제적인

초화종자



철시꽃



과꽃



맨드라미



사루비아



해바라기

법면녹화의 최고봉,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

연재 - 11



가을단풍

들단풍(*Aceriphyllum rossii*)은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산야의 계곡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이며 주로 바위와 물에 어울려 자리하면서 단풍나무와 비슷한 잎을 가지며 봄이 되면 푸르며, 또한 단풍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잎의 모양뿐 아니라 가을에 물드는 단풍마저도 곱다. 봄부터 늦봄까지의 빛은 아니어도 깊이 있는 붉은색이 윤치되어 보기 좋다. 자생지에서는 이른 봄 주로 돌틈에서 잎보다 먼저 꽃대가 올라와 하얀꽃을 피운다. 그리고 가을엔 잎이 단풍으로 변하는 것도 즐길 수 있는 식물이며 요즘은 원예용 야생화로도 농장에 재배해 봄이면 시장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무늬들단풍

화분에 심을 경우에는 화분 흙은 물 빠짐이 좋게 흙 배합을 하고 화분아래에는 화분 높이의 1/5정도 굵은 마사흙을 채운다. 화분의 흙은 화원에서 파는 분갈이를 표준배양토에 모래나 마사흙 10~20% 정도 섞어서 심으면 된다.

봄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

“들단풍”

다. 기르는 장소는 오전정도만 햇빛이 드는 반음지 정도가 좋고 물기에 주로 자라므로 공중습도가 다소 높게 관리해주면 좋고 건조에도 강하여 기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수반에 물을 붓고 흘러놓고 키워도 되고 분경을 단독으로 만들거나 다른 소재와 함께 어울려 만든다 기르면 더욱 운치가 있다.



들단풍은 월동도 하며 매우 생명력이 강하고 구근형태의 몸체가 매년 늘어나 퍼져나간다. 번식은 실생용 하거나 구근형태의 몸체를 분주에서 늘려나갈 수 있다. 생명이 강하여 누구나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을뿐 아니라 잎과 꽃 모두 분경용으로 알맞은 소재이다.

들단풍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이미지를 풍기며, 봄에 들단풍의 흰꽃을 보면 들단풍의 꿈이 열매나 아담 달고 깨끗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고 나면 계란모양의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열매가 익으면 두 쪽으로 갈라져 씨가 쏟아진다. 이 열매를 보고 있으면, 마치 흙 부와 농작에서 나오는 막을 생각나게 하고 그 밖에서 쏟아져 나온 금은보화를 연상케 한다고 한다.

겨우내 잠지고 있던 고사리 같은 손길을 어린 봄 자상으로 올리는 모습을 직접 감상해보시길...

토종허브를 찾아서

연재 - 11



채색한 듯이 아름답다.

부추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시고 맵고 열이 독이 없다. 날것으로 먹으면 아기를 맞게하고 독을 풀어준다. 익혀 먹으면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성정을 화하게 한다. 부추는 일본 기원초(起原草)라고 부르며, 이시진(李時珍)이 지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온신고정(溫腎壯陽)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腎)이란 신장(腎臟)뿐만 아니라 고환이나 부신(副腎)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비롯하여 비뇨생식기 계통 전반을 일컫는다. 따라서 온신고정이란 신(腎)을 다스린다는 의미로서, 부추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능을 왕진(旺進)시키는 다음의 효능이 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효과가 있어 몸이 찬 사람에

물감을 수놓은 듯 붉은 자주색의 꽃이...

“산부추”

게 좋으며 상식하면 감기도 예방한다. 부추의 아미성분은 소화를 돕고 경을 튼튼하게 하며 강정(強精)효과가 있다. 부추즙은 피를 맑게 하여 허약체질 개선, 미용,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다. 부추의 열매는 구지리고 하여 비노기계 질환의 약재이며, 혈액정화, 각종 감성제로 쓰인다. 또 음식물에 체내 철사를 할 때는 부추편장국을 끓여 먹으면 효력이 있다. 이 밖에도 산부추, 치질 및 열변, 치통, 변비, 두통 등의 치료 및 개선효과가 있다.

일반 부추와 비슷한데 초기에 홍자색의 꽃이 피면 대안여 아름다우며 개화기도 길어 지피효과가 뛰어나다. 양지성식물이나 반양지에서도 잘 자란다. 배수성이 좋은 사질 토양에 다소 건조한곳이 좋다. 산부추를 관리할 때는 다른 식물들과의 경합에 다소 약하기 때문에 주위의 잡초를 철저히 제거해줘야 한다. 또한 과습에 약하므로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유사한 식물로는 허브식물로 잘 알고있는 차이브가 있으며 화기가 길어 조경용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우리꽃에서는 ‘꽃피’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이브

지상중계

“2007년 희망의 워크샵”



산행 시작하기전 집합 구호

되었다.

하산 후 박공영 대표가 “2007년 우리꽃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 후 각 분임별 토의를 하게 되었다. 우리꽃 직원에 대해 늘어나 음해부터는 분사, 이천분장, 포천부식물원, 영림부 및 각 지사 이별제 사업장별 4개조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다. 각 사업장별로 2006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2007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여 다른 사업장의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담당성과 문제점 등을 상호하여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일정이 끝난 후 2007년 희망의 워크샵 첫날 일정의 마무리인 뒤풀이가 이어졌고 뒤풀이 시간 첫 순서로 우수사업장 시상식이 있었다. 지난 한해동안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은 직원들에게 대상1명, 우수상2명씩을 선발해서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이천분장의 이은석 대리, 포천부식물원의 한재동 대리, 포천부식물원의 안경호 사원이 수상하였고 시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인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뒤풀이 도중 새해 다짐을 다시 확인한다는 의미로 박공영대표와 직원들의 야간 얼음속 다이빙 이벤트도 있었다. 2007년 워크샵 첫날뒤풀이 대표와 직원들간의 격의없는 이야기로 끝내려 갔다.

다음날 전직원체육대회로 다시 한번 각 사업장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체육대회가 끝난 후 각 사업장별로 업무지침

을 하달 받은 후 2007년 워크샵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 각지 사업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2007년 워크샵은 몇 가지의 의미로 우리꽃에 다가온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꽃의 방향이 발전이었다면 이제는 발전과 안정 모두 동시에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늘어나 사업장만을 늘어난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서 이번 워크샵은 각 직원들 상호간의 이야기의 장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아름답게 되어있는 눈꽃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꽃 전직원 개개인은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2007년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

여러분들의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구독/후원을 하시려면

농협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공영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전화 : (02)3412-1281~2

팩스 : (02)3412-1283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양귀비식물원

<6>

“포천 부식물원”

봄의 기지개

예년에 비해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이라지만, 그래도 겨울은 혹독했다. 찬바람 속에서 파종을 한 양귀비 종자가 잘 발아될까 노심조사 해야 했고, 새로 심은 10만개의 튕립구근이 추위를 잘 견디며,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혹시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 놈들은 없는지 매일 확인해야 했다.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은 잔디 광장에 생겨져 있는 크로커스이다. 예년에 비해 열흘 정도 빨리 개화해 한겨레 노란 꽃망울을 이루고 있습니다. 튕립은 새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율곡 꽃망울 모양을 기다리고 있다. 산책로 주위에 심겨진 알마꽃과 노루귀는 꽃망울이 맺혀 있고 부지개 동심의 꽃잔디는 벌써 개화를 시작했다.

꽃길 열 일렁이는 전망대

작년에는 꽃은 좋은데 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드는 공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우선 양귀비광장 위쪽 광장에 데크를 설치해 좀더 편안하고 여유있게 양귀비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씨앗밭 가드 위쪽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식물원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만든 것도 큰 변화이고 전망대에 올라서면 발아래 바로 숨겨져 있는 시크릿 가든이 보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넓따한 양귀비 꽃밭이 일렁이게 된다. 좀더 멀리로 시선을 보내면 색색깔의 연분홍 초화 군락이 한눈에 들어온다. 뒤쪽으로는 뽕나무 시냇물 배냇강이 눈에 들어오면 봄에는 원색의 튕립이 여름에는 나리가 줄줄이는 곳이다.



잔디광장에 들어선 두 대의 헬기 또한 부식물원만의 특색이다. 헬기 안에서 여유있게 차를 마시는 색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자작나무 길

원물감을 발라놓은듯 새하얀 자작나무 수피는 자연히 발길들을 멈추게 만든다. 그 길을 걸으면 사람이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을까...



식물원에 방문했을 때 맨 처음 접하는 곳이 주차장이다. 그래서 특색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속에서 물론 공간도 넓었지만, 양귀비광장과 중앙부에 자작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해서 입구에서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 것도 큰 변화이다.

양귀비광장 아래쪽의 메타세콰이 가로수는 자작나무와는 또다른 느낌을 자아냈다고 곳곳의 사람속에서 가로수 길에서는 아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허브향을 느끼며 꽃 속에서 발을...

식물 판매장을 개조해 손님들이 여유있게 쉬면서 식물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식당과 카페를 식물원 판매장 옆에 위치시켜 한 곳에서 식사와 차 그리고 식물구 매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단지 커피를 해결하는 식당이 아니라 편안하게 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위에 항상 푸듯푸듯한 여러 종의 관엽식물과 화려한 초화류가 배치되었다. 백만화원을 세팅 종류로 정리해서 색다른 느

낌을 자아내게 했고 백천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독특한 허브 향기를 맡으며 꽃 속에서 양귀비 비빔밥이나 새싹비빔밥을 먹는 느낌은 분명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배워갈 수 있는 식물원

단지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만가를 배워갈 수 있는 식물원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또한 저희 직원들의 몫이다. 고민의 결과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직접 꽃을 따고 눌러서 만드는 압화만들기, 이끼로 만드는 토퍼아트, 알록달록한 천연염색 그리고 허브로 나만의 비누를 만드는 허브비누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물론 직접 화분에 야생화를 심고, 삼목을 하는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



- 1 식물원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 2 호수 위쪽의 사람의 자작나무길
- 3 발아 되고 있는 양귀비 정원
- 4 성서, 카페, 식물판매장 개조 공사
- 5 헬기 전용
- 6 헬기 내부

포천 부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441
문 의 : 1588-5088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



산행중



한겨울 치기온 얼음속 속으로



우수사업장

우리꽃 이천연구소 찾아오시는 길



- 1 종부고속도로 이용시
① 일북 IC ② 청호원방향 좌회전(4.5km)
③ 이천 수산리 이점표대 좌회전(5km)
④ 막힌 T자형삼거리 좌회전(800m)
⑤ 남해와아비로 일간만 앞 우회전

영동고속도로 이용시

- ① 이천 IC ② 청호원방향
③ 하이네스 지나 대원삼거리 우회전 약(10km)
④ 송곡주유소(우측)
⑤ 남해와아비로 일간만 앞 좌회전

이천시내 국도 이용시

- ① 미련다동행 지나 직진(1km) ② 박하사거리 우회전
③ 성서, 모기방향 우측으로 빠져
④ 골다리 아래로 좌회전 ⑤ 송곡주유소(우측)
⑥ 남해와아비로 일간만 앞 좌회전

골프장, 아파트, 도로가의 새로운 경관연출!

대면적의 아름다운 연출을 위한 최고의 소재 "우리법면 3.4호"

특 성

- ① 야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②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해에는 일년생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해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 ③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 ④ 연중 시공이 가능하며 유사품과의 구별을 위해 무늬질경이를 혼합하였다.

사용량

- 파종량(㎡) : 10g
- 파종 시기 : 연중가능
- 파종 방법 : 먼 정리후 기계분사파종
상황에 따라서 손파종도 가능

